

“5·18정신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됐어요”

‘모두의 오월...’ 토크콘서트

김희송 교수·서부원 교사 진행
목포의 5·18 역사부터 인물까지
책임자 처벌·가짜뉴스 등 질문
“5·18 유공자 희생·공헌 기억해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과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내 이야기하는 5·18 토크 콘서트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렸다.

전남서부보훈지청은 22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과 1층 소강당에서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5·18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패널로 나선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와 서부원 살레시오고 교사를 비롯해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무처장, 김기중 전남일보 사입본부장, 목포해양대 학생 및 목포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크 콘서트에 앞서 목포해양대 학생들은 양관석 5·18유족회 전남도지부장 등 4명의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담아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무자비한 총칼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모두의



22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기관공학과 1층 소강당에서 열린 ‘모두의 오월, 민주를 그리다! 5·18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무처장,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교수, 서부원 살레시오고 교사, 목포해양대 학생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자랑스러운 역사와 유산”이라며 “오늘 토크 콘서트가 5·18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고 소중한 정신을 물려주는 5·18민주유공자와 가족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을 연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서부원 교사는 관객석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5·18은 어떤 것인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하고 끝난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일부 학생들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아픈 역사’다”,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시

민들이 맞서 싸웠기 때문에 ‘민주항쟁’이다” 등 자신만의 답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당찬 대답에 김희송 교수는 광주뿐만이 아닌 목포 일원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있었다.

김희송 교수는 계엄상황일지를 보여주며 “광주에서는 27일 새벽 4시에 도청이 함락됐지만 같은 날 오후 9시25분 기준 목포역 광장에서는 3500여명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햇불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며 “계엄군은 이를 진압하려 했지만 이준

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해 목포시민들의 저항권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압 지시를 거부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조치가 담긴 문건에 전두환의 사인이 적나라하게 보이자 이를 들던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행태에 다들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은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임무였기에

고초를 겪었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숙연해졌던 분위기도 잠시, 토크 콘서트 시작 전 미리 학생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포스트잇에 작성해 부착한 질문판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가득했다. 그중 가장 많이 질문한 유공자 처우에 대해 김희송 교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2~3년 전 5·18 유공자들이 특례를 받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성행했다”며 “삶의 지표상 현재까지 살아있는 유공자들은 최하층에 속한다. 겨우 30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 수준이며, 그 당시 겪은 고통과 희생, 지금까지 계속되는 트라우마에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욕되게 하는 가짜뉴스가 나오면서 이들의 존엄성마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책임자 처벌 △북한군 개입설 △광주의 5·18기념공간 등 무수한 질문을 쏟아내 긴 시간 동안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임채현 목포해양대 교무처장은 “가장 소중한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토크 콘서트를 통해 5·18정신을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전남서 화재 잇따라 발생

광주·전남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장성경찰은 22일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상점 주인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장성군 장성읍 3층 규모 상가주택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압됐지만, 집 일부가 타고 A씨와 일가족 3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4명 중 1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이웃과 갈등을 겪다 불

을 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2시21분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연기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비 10대와 대원 40여 명을 동원해 현재 큰불을 끈 상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전남유아교육 단체·교사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반발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안해”

전남 유아교육 단체와 유치원 교사들이 지난달 입법예고한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직개편안이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전남 유치원 교사 등 200여명은 22일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의 ‘2024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공개설명·토론회’에서 “그동안 전남교육청이 보건·급식·안전·교권 등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 시 유치원을 배제했다”며 “유치원을 학교에 배제하지 말고 행정적 조치(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와 함께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개편안 가운데 유보통합팀을 유초등교육과가 아닌 교육복지과 소속으로 배치한 것을 두고 ‘유치원 홀대’라며 항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 지자체의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해 유치원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유보통합팀은 지자체 소관의 어린이집 업무를 도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은 유보통합팀을 유초등교육과 소속으로 두고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유보통합팀을 교육복지과 소속으로 배치해 이관 업무를 추진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전남 유치원 교사들은 유초등교육과가 있는데, 교육이 아닌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유보통합팀을 배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팀의 업무는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라며 “교육과정은 업무 이관 후 유초등교육과를 유아교육과와 초등학교과 분리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지원금: 설립일 제14~28회(2024.3.11~2025.2.28)
위 항목은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정보를 거쳐 제공됩니다. 노란우산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재정보장을 위해 매 회계연도 납부한 공제금의 50%를 보증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